

반미감정 조성 나선 中, 연일 '한국전쟁' 조명

CCTV 6·25 영화 긴급 방영 “무역전쟁 미국 이길 수 있어” 잠잠해진 반한감정 유발 우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중국의 6·25 전쟁(한국전쟁) 참전을 집중 조명하면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쟁의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이 한국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온다.

20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관영 학자들을 인용해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인들이 참전한 한국전쟁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미

국의 끊임없는 도발은 중국인들에게 반미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 관영 방송인 중국중앙(CC)TV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다룬 영화들을 긴급 편성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방영했다. 지난 19일에는 장진호 전투에 관한 영화가 CCTV 채널 6번을 통해 중국 전역에 송출됐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저수지 장진호에서 벌어진 격전으로, 미군 1029명이 사망하고 4894명이 실종됐다. 미군 전쟁사에서 가장 고전한 전투로 기록되었다.

CCTV는 지난 16일에는 '영웅아녀(英雄儿女), 17일에는 '상감령(上甘嶺)을 방영했다. 영웅아녀와 상감령은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자원해 분투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부모, 부부, 전우 간 생사 이별을 줄거리로 하는 영화다.

CCTV 채널 6번 측은 중국이 제작한 한국전쟁 영화들을 갑자기 방영한 데 대해 "시청자의 요구와 현재 상황을 반영해 이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은 "우리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CCTV 최고" 등의 댓글을 올렸다.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최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우리에게 조선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

전쟁을 언급하는 영화와 방송, 글들이 쏟아지는 것은 반미 감정 조성을 통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인들의 불만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싱크탱크 판구연구소의 안강 연구원은 "중국이 싸울 때 중국과 미국이 공정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한국전쟁을 부각함에 따라 당시 중국군과 대척점에 서 있던 한국 또한 미국과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반한 감정이 사드 사태 이후 가라앉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전쟁 부각으로 또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격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2〉 황소

황소(黃巢, 820~884)는 산둥성 조주 원구현에서 태어났다. 소금 밀매상 출신으로 농민반란을 주도해 당왕조 멸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말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빈번이 일어났다. 의종때 일어난 구보의 난, 방훈의 난이 대표적이다. 산둥성 출신의 소금 밀매상 왕선지(王仙芝)가 하남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황소도 그에 호응하여 쫓겼다. 873년 12세에 불과한 이엄이 환관들에게 추대되어 황소 측근으로 즉위했다. 자치통감에는 "황소는 젊어서 왕선지와 함께 사염(私鹽) 판매에 종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사의 난 이후 당왕조는 재정을 소금 판매수익에 주로 의지했다. 궁중비용, 군비, 녹봉이 소금 수입에서 나왔다. 정부가 소금 판매로 독점 이익을 누

리를 대제(大齊)로, 연호는 금통(金統)으로 하는 신정권을 수립했다.

반군은 이내 상점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다. 관리에 대한 증오심이 커 많은 관리와 군인이 살해되었다. 황소가 장안을 유지한 것은 2년 4개월에 불과했다.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반란군의 성격상 권력다툼은 불가피했다. 결정적 계기는 유력 장군인 주운의 배신이었다. 후에 당을 멸망시키고 후량을 건국한 주운은 야심있고 비정한 인물이었다. 주운이 하중절도사 왕중영의 공격을 받아 구원을 요청했는데 황소 측근인 좌군사 명제가 이를 묵살했다. 결국 황소의 감군사 엄실을 죽이고 당나라에 귀순했다. 희종은 크게 기뻐해 전충(全忠)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안문절도사 이극용도 타격을 가했다. 터키계 사타족 출신으로 방훈의 난에 공을 세워 이씨 성을 하사받았다. 용모

농민반란 주도 당왕조 멸망 결정적 역할

리자 사업이 성행했다. 정부는 불법인 사염 판매를 엄중히 단속했다. 이에 반발해 사업업자의 저항도 격렬했다. 황소가 거병하자 참가자가 수천명으로 늘어났다. 하남 15주를 휩쓸는 동안 수만명으로 불었다. 거병할 즈음 때뚜기 피해가 심해 농촌이 황폐해졌다. 농민이 파산하고 도둑떼가 들끓었다. 이들이 반란에 참여하면서 대규모 농민반란으로 발전하였다.

878년 왕선지가 호북성 황매현에서 패사하자 황소가 반군의 지도자가 되었다. 호북성의 패배로 5만여명의 반군이 죽는 등 타격이 컸다. 반군은 하북의 번진 세력을 피해 멀리 광둥성 광주까지 남하했다. 그러나 기후가 다르고 전염병이 창궐했다. 부하들의 권유에 따라 "북으로 귀환해 큰 일을 도모하리라"는 마음으로 북벌(北伐)을 결심했다. 양자강을 건너으나 회남 번진에게 여러번 패배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회남절도사 고변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세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880년 반군은 낙양을 함락시키고 12월 장안 외곽 동관을 점령했다. 환관 전량자는 희종을 호위해 사천으로 도망쳤다. 장안에 입성한 황소는 "병사를 일으킨 것은 서민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은 평안히 살며 두려워할 것 없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황제에 올라 나

가 기이하고 한 눈이 작아 독안룡(獨眼龍)으로 불리었다. 양전파에서 반군이 대패했다. 883년 4월 황소군은 장안에서 퇴각했다. 퇴각의 공로로 주전충은 선무절도사, 이극용은 하동절도사로 임용되었다. 장안 탈출 후 1년여 각지에서 당군과 치열히 싸웠다. 식량이 부족해 아사자가 속출하는 아비규환이었다. 하남성 주병현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6월 태산 동남쪽낙호에서 조카 임언에게 목이 잘렸다.

민간에는 황소에 얽힌 전설이 많이 남아있다. 황소의 옛 부하 장전지가 낙양에서 승려로 변신한 황소를 숨겨주었다는 풍문이 있다. 절강성 명주 설두산의 설두선사가 사실은 황소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반란이 실패한 이유는 반군이 제대로 된 조직의 틀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이라는 점이다. 장안을 점령한 이후 통치 원칙이나 세부계획이 없었다. 결국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관료, 백성들에게 황소는 그저 침략자일 뿐이었다. 외교 전략이 없어 각지에 웅거한 번진 세력과 연합할 수 없었다. "하늘을 찌르는 듯 짙은 국화향이 장안에 가득하니 장안성을 노란 국화색 황금갓옷으로 덮어버리리라"라고 뜨거운 열정을 노래했지만 세속의 투쟁에서는 처절히 패배했다.



산유국 베네수엘라 '급유 대란' 베네수엘라 제2 도시 마라카이보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차량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 외신은 19일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석유 생산에 필요한 희석제 등 핵심물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주유난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日 여론도 대북대화 급물살... 여론조사 '대화'가 '압력' 앞서

두달전 조사때와 역전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조건을 달지 않고 북일 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여론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17~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대화와 압력 중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물었

더니 '대화'가 47%를 차지해 '압력'이라는 응답 40%를 앞섰다. 지난 3월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압력'이 45%, '대화'가 41%를 차지했던 것에서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아베 정권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이라는 기존의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2%가 찬성에 반대한다는 응답 33%를 앞질렀다. 찬성 응답률은 여당 지지층에서 61%나 돼 반대 응답률

28%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도통신이 18~19일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아베 정권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방침에 대해 61.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대답 30.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연호 변동과 일왕 교체가 동력이 됐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20층, 77평, 최상층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전망 좋음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3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임대가능
- 건설회사, 보험회사등 사무실 적합
- 시세/감정가 - 4억
- 급매 - 3억3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